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정책 추진 방향

“변화와 쇄신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조성”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8월 12일 제11대 후반기 의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

강희문 의장은 코로나19, 각종 현안사업 등이 산적해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며,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와 쇄신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조성

또,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의원의 전문성 강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동감 있고 건강한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전문위원 확충·의정자문위원회 등 전문성 강화

먼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입법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 전문위원을 확충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으로서 입법 심의의 내실화에 나선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정 전반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분야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시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포럼과 토론회 개최,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비 공개와 SNS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밀착 조례안 잇따라 발의



강릉시의회가 최근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①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
-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하고 지역어(강릉 사투리)의 진흥 및 육성사업
- ②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
-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향교·서원·영당 등의 활성화 지원
- ③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
- 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 월5만 원의 반장 통신비 지원 신설
- ④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주현 의원 대표 발의
-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감면 대상 규정
- ⑤ 강릉시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
- 협의회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

강릉시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강릉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



▲ 중양동 주민간담회



▲ 옥천동 주민간담회

여름 해변 순찰 및 근무자 격려



코로나19 극복! 헌혈 릴레이 동참

